# 兩岸 66년만의 악수…‘쑨원’에서 공감대 찾는다

## 中 시진핑 주석·대만 마잉주 총통 정상회담 교류 물꼬

## 내년 쑨원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기폭제 될 지 주목

중국과 대만이 분단 66년만의 양안 정상회담 직후 양측 모두가 국부로 추앙하고 있는 쑨원(孫文·1866~1925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안 정상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한 중국과 대만 모두 쑨원 탄생 150주년인 내년 11월 12일을 앞두고 성대한 기념활동을 예고하고 정신적 교감의 공통분모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공화제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근대 중국의 창시자인 쑨원은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국민당을 포함해 대다수 중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대만 독립파 세력들이 쑨원의 존재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양안의 쑨원 열기 고취가 대만 총통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먼저 중국에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양안 정상회담 직후인 8일 회의를 열어 내년 11월 12일 쑨원 탄신 150주년 기념활동을 거국적으로 성대하게 거행키로 결정했다.

정협은 ‘위대한 민족 영웅이자 애국주의자’인 쑨원의 애국사상과 혁명의지 등을 계승하고 국내외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쑨원의 고향인 광둥(廣東)성 중산시는 이날 쑨원의 증손으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쑨궈숑(孫國雄·72)을 초청해 쑨원 기념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과거 중화민국의 수도로 쑨원의 묘가 있는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에서도 쑨원 탄생 149주년인 오는 12일에 맞춰 ‘중산릉’ 참배와 함께 다양한 추모행사가 벌어진다.

난징시는 쑨중산기념관의 이전도 추진한다. 중산릉과 다소 멀리 떨어져있고 공간이 협소해 관련 문물을 충분히 전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산릉 부근의 보아이팡(博愛坊)에 있는 3900㎡ 공간에 새로운 중산기념관과 광장, 전시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

대만은 중화민국과 국민당을 창건한 쑨원을 공식적인 국부(國父)로 삼고 있다. 대만은 쑨원이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립한 것을 기념해 민국력(民國曆)을 쓰고 있다.

내년 쑨원 탄생 150주년을 앞두고 오는 12일 국립대만경극단이 제작한 경극 ‘손중산’을 타이베이 국부기념관 대회당에서 초연한다. 쑨원 일대기를 현대적인 경극 형식으로 창작한 공연이다.

대만은 또 쑨원 탄생 120주년에 이어 30년만에 다시 쑨원 탄생 150주년 기념화폐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중이다.

양안 모두 쑨원 열기 고취에 나서는 이유에는 대만 독립파 세력을 견제하려는 뜻이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극렬 대만 독립파는 국민당을 창시한 쑨원이 대만 독립을 막게 한 원흉이라며 적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말하지 않아도 우린 결과를 알고 있다”

### 수치 야당, 미얀마 총선 개표 초반 압승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사진)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개표 초반 집권 여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현지시간) 개표가 완료된 하원 12석 모두를 NLD가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12석은 수도 양곤의 전체 하원 45석 중 일부다.

개표가 완료된 지방의회 4석 중에서도 NLD는 3석을 챙겨갔다.

지난 8일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자유 총선에서 NLD는 선출직 의석의 67% 이상을 얻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단독 집권하게 된다.

이날 선관위 발표를 앞두고 NLD는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전망치를 발표했고, 수치 여사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모두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승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반난민정책’ 크로아티아 우파야당 총선 승리

### 폴란드 이어 유럽 좌파 연패

유럽으로 밀려드는 중동 난민에 대한 유럽민들의 반발심이 커지면서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가 상대적으로 난민 친화적인 좌파 정권을 밀어내고 속속 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치러진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중도좌파인 현 정부보다 난민에 강경 대응하는 중도우파 야당 연합이 최다 득표를 하면서 지난달 말 폴란드 총선에 이어 유럽의 우향우 추세를 드러냈다.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의 우파 연합은 더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해 중동 난민의 유입을 제한한다는 입장으로, 집권당 사회민주당(SDP)의 난민 정책이 관대하다고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 “평균기온 4도 오르면 뉴욕·상하이 잠긴다”

### 미국 연구결과…온난화 경고

오는 30일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억 명이 거주하는 세계 대도시들이 속속 물에 잠기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층이 극빈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다.

과학자와 언론인으로 구성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8일(현지시간)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4도 오르면 현재 6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이 물에 잠긴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 ❻ ‘토사구팽’ 천재 한신

## 항우 등지고 유방 도와 한나라 건국

## 통일제국 호령…능력 과신하다 처형

한신(韓信, ?~BC196)은 강소성 회음현 출신으로 유방을 도와 한나라 건국에 기여한 명장이다. 한때는 항우·유방과 함께 천하를 호령했지만 말년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불운한 영웅이다.

사기 회음후 열전에 따르면 그의 초년은 불운했다. 평민일 때는 가난하고 방종해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또 장사할 능력도 없어 남을 따라다니며 먹고살아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다. 그를 업신여기는 한 젊은이가 “네가 비록 키는 커서 칼을 차고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겁쟁이일 것”이라며 “너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를 찌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가라”며 모독했다. 그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랑이 밑을 기어나갔다.

그는 진시황 사후 항우가 일으킨 반(反)진 동맹에 참여했다. 그러나 신분이 미천해 미관말직에 머물렀다. 항우 밑에서 적지 않은 계책을 내놓았고 부지런히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남을 하찮게 여기는 항우의 오만함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이 항우를 모시고 일을 했을 때 계급은 고작 낭중이었다. 직위 역시 창을 쥐는 일이었다. 아무리 계책을 많이 내놓아도 써주지 않았다. 내 뜻은 실현될 수 없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꿰뚫어 본 사람이 유방의 참모 소하였다. 소하는 유방에게 그를 천하에 비길 자가 없는 국사무쌍(國士無雙)이라며 중용할 것을 건의했다. 유방이 그를 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자 유방과 항우의 전세가 유방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비할 데 없는 군사적 천재였다. 초한전쟁 기간 중 항우와 한신이 명실상부하게 초일류 군사 천재였다.

그는 유방의 군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한·위·조 등 주변국을 정벌해 나갔다. BC 203년 항우와 유방은 홍구를 경계로 동쪽은 초나라, 서쪽은 한나라가 지배하는 협정을 맺었다. 항우는 군을 해산했으나 유방은 협상을 깨고 영지를 미끼로 팽월 등 제후를 끌어들여 해하에서 항우군을 포위했다. 그는 30만명의 군사를 지휘해 항우를 패배시키고 오강에서 자살케 만들었다.

당대의 기인인 괴통은 해하의 결전을 앞두고 한신에게 천하삼분의 계책을 내놓았다. 그는 유방과의 의리를 거론하며 거절했다. 괴통은 “용맹과 모략이 군주를 떨게 하는 자는 위태롭고, 공훈이 탁월한 사람은 칭찬받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장량의 건의를 받고 유방이 제안한 공천하(共天下)는 한신의 이탈을 주저케했다. 그의 소탐대실이 대사를 그르쳤다고 볼 수 있다.

천하통일 후 한신은 초왕에 임명됐다. 불우한 시절 밥을 먹여주던 아낙네를 찾아 천금을 하사했다. 자기에게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만든 자도 불러 중위로 삼으며 “이 사람은 장사일지니 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에 내 어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는가? 그를 죽이더라도 이름이 드러날 것이 없어 참아 오늘의 공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BC 201년 그가 모반했다는 밀고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기 위해 몸을 숨겨준 종리매의 목을 바쳤다. 처벌은 면했지만 초왕에서 회음후로 강등됐다. BC 197년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은밀히 진희와 공모하였는데 결국 발각되어 장락궁에서 여태후에게 처형되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괴통의 계책을 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아녀자에게 속은 것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느냐.”

토끼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먹는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그의 참혹한 죽음을 잘 보여준다. 천하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는 법. 유방에게는 그는 반드시 제거돼야 할 영웅이었다.

사마천은 “그가 자기 공로를 뽐내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다면 공훈은 주공, 소공, 태공망 등에 비할 수 있고 후세에 사당에서 제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천하가 안정된 후에 반역을 꾀했으니 온 집안이 멸망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초당대학교 총장〉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